

# 양계산물, 안정성 확보가 생존 좌우한다.

□ 정리 / 김용화 홍보팀장

「본고는 지난 9일 현재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본지 편집위원으로 축산업계 발전을 위해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는 과학사로 (주)신정재 회장과 본지 김용화 편집장이 양계산물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나눈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주 -

▲ 김용화 : 그간 양계인들은 생산성을 높여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가장 급선무인 것처럼 인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자동화를 하였고, 어떻게 하면 사료요구율을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면 수입이 개방되어도 살아남거나, 농가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최근 들어 식품차원에서 안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또 다른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물약품에 대해 일가견이 있으신 신 회장님께서 양계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신정재 : 축산식품 뿐 만 아니라 모든 식품이 사람의 건강유지와 보건향상이라는 측면

에서 볼 때 안전성 확보는 지극히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양계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양계농가의 생존기반 확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양계인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기본인 동시에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성이라는 문제를 대부분 동물약품을 과다 사용하거나 남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잔류문제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휴약기간을 지켜서 해결할 수 있지만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등 유해균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김용화 : 동물약품하면 대개 완제품이나 원재료를 수입하여 재포장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양축가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현재 양계용 동물약품의 국내 제조 수준이나 생산현황은 어떻습니까?

△ 신정재 : 그렇지 않은 않습니다. 양계용 동물약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전염

병을 예방하는 생물학적 제제와 영양과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영양제 및 항균제로 분류가 됩니다.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들이 공급되고 있지만 다국적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대량으로 수입이 되어 6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영양제와 항생.항균제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이 국내에 소개되어 있으며, 국내 동물약품 제조업체의 수준은 제조 수준 뿐 만 아니라 품질관리 면에서 국제적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 김용화 : 현재 동물약품업계의 최대 현안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양계산물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 신정재 : 아무래도 앞에서 동물약품의 과다사용과 오용이 안전성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을 하였으므로 지난번에 개정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이것이 우리 업계의 최대 관심사이며 현안문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칙대로 규제를 개혁하고 유통단계를 줄여서 양축가들에게 저렴하게 구입토록 하여 이익이 돌아가게 한다는 데에는 아무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중간 마진이 몇 십억도 안 되는 외형의 비타민제나 아미노산제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다고 사료가격이 절감되기란 극히 어려운 실정을 지적해야 하고, 앞으로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큰 국제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남용의 소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품목은 오히려 전문화를 통하여 공급을 받도록 계도를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진다는 이론에 치우쳐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업계 발전상 문제가 있어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축산농가에게 원가절감이 되도록 한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난번에 개정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이익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신중한 검토

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용화 : 보다 전문적인 이야기는 차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여 토론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런데 요즘 닭의 질병이 예전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문과 약품판매 실적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느끼신 바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 신정재 이사장

△ 신정재 : 동물약품업계는 사실 축산물의 수입량 증가와 소비위축으로 축산업이 위축이 되어 약품 시장까지 위축되고 있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 발생이 감소하여 약품사용이 줄었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생산기반이 위축되어 약품사용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축산업계나 동물약품업계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질병발생이 많다는 소문과 실제 약품사용량의 변동은 별로 연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약품이 축종별로 구분이 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특정 질병에 사용되는 양이 적어 어느 한 질병 발생이 많다고 하여 금방 약품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료에 첨가되는 기초 약제의 경우 가끔 일부 공장에서 가격경쟁이 심한 이유로 가급적 단가가 싼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병발생과 약품소비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콕시듐이나 CRD에 사용되는 약품은 질병발생과 비례가 되지만 가금티푸스에 많이 사용되는 마이신은 돼지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 김용화 : 시사성이 있는 문제라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일전에 벨기에산 축산물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양계인들도 안전성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신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신정재 :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양계산물 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식품이 다 같은 결과가 빚어진다고 속단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산농가에서 사육되는 많은 가축들은 선진국에 비해 질병 발생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일단 질병이 발생을 하면 축주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권장량 이상의 치료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투약을 해야 하는데 경험에 의해 해결을 하려는 경향이 높아 오용과 과용의 소지자 높은 만큼 안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양계산물을 생산하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소비자는 국내 축산업 기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공표가 되면 피해는 생산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계분야도 양돈업계가 돈 콜레라의 박멸을 위해 대책을 세우는 것과 같이 가금티푸스 등 발생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주요질병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박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생산자 각자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어려움이 많은 문제이므로 범 업계 차원에서 양질의 양계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 김용화 :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할애하여 좋은 의견을 들려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양계